

주요 내용

국내 실물 부문

경기 종합 : 견고한 회복세 지속 여부 아직 불투명

- (동향) 투자 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표상의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지표가 갖는 의미가 약화된 상태이고 향후 성장을 주도할 요인이 부재하여 경기 회복세가 견고히 지속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정책 과제) 특히 대외 불안 요인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현재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임

산업 생산 : 내수 회복에 기인한 생산 증가세 지속

- (동향) 내수 출하의 회복세에 힘입어 17.1%의 급등세를 보임. 반면 이러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세는 확대되고 있음
- (전망) 지난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가 계속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고용 : 고용 불안을 동반한 실업률 하락세 지속

- (동향)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실업률은 4월 들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함. 반면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불안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 (전망)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고용 불안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소비 :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

- (동향) 자동차 판매 및 대형 할인점 매출의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8.2% 늘어나 1월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 또한 비내구소비재 출하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임

- (전망) 98년의 지나친 위축에 대한 반등 영향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실업의 지속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투자 : 건설투자 당분간 부진 지속

- (동향) 국내기계수주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도 일제히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이는 전년 4월 이후 건설 관련 지표들의 극심한 부진에 대한 상대적 반등의 측면이 강함
- (전망)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세 반전이 향후 2~3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나 건설투자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외거래 : 실질적 회복 없는 수출 증가세 반전

- (동향) 99년 5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하여 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수입은 25.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비교 시점인 전년 5월의 부진이 수출 증가세 반전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5월 수출이 전월인 4월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전망) 호조 및 부진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전년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인 수출 여건 개선이 없어 수출 증가세 반전은 수치상의 현상에 불과할 것임

물가 : 상반기 중 저물가 기조 지속

- (동향) 초과수요 압력 미미, 비용요인 안정,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힘입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5월중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전월대비 0.2% 하락함
- (전망) 상반기 중에는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전망. 그러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내외의 낮은 수준에 그칠 듯

경기 종합 : 견고한 회복세 지속 불투명

채 창 균

투자 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표상의 경기 호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지표가 갖는 의미가 약화된 상태이고 향후 성장을 주도할 요인이 부재하여 경기 회복세가 견고히 지속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특히 대외 불안 요인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현재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임

【향후 성장 주도 요인 부재】

- 지표상의 경기 호조 지속
 - 소비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회복세, 건설수주의 증가세 반전, 수출의 증가세 반전
- 그러나 경제지표가 갖는 의미 약화
 - 98년의 지나친 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음
 -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 자체는 아직 미미한 수준
- 향후의 성장 주도 요인 부재
 - 소비 증가세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제약될 소지가 크며 고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일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지만 절대액으로는 아직 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최근까지 재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아직 낙관적으로 변화되고 있지 못함.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움
 - 5월 들어 수출이 미미하나마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원화가치 절상 압력 심화로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높음

- 건설투자 증가율은 연말까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급증으로 성장률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음
- 아직 경기 과열을 우려할 상황은 아님
 - 최근의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초과 수요 압력은 미미한 상황이므로,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 우려는 아직 크지 않은 상황임
 - 1/4분기 GDP는 전년대비 4.6%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중 총수요(소비+고정투자+순수출)는 0.1% 증가에 그침
-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부정합 지속
 - 회사채수익률이 7%대로 재진입하고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 대를 돌파하는 등 금융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실물부문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금융부문의 호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의 증시 호조가 실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거품 발생이 염려됨

【대외 불안 요인 잠복】

-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엔저 심화 등과 같은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상황임
-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타기 전에 대외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W자형 경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
 - 향후 성장 주도 요인이 아직 부재하므로, 해외 악재에 따른 경기 위축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경기 부양 기조 유지 필요】

- 당분간 저금리 정책 등 경기 부양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경기가 아직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특히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불리 경기 부양 기조를 늦출 경우 자칫 과거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금융부문의 호조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ckche@hri.co.kr ☎ 724-4031)

산업 생산 : 내수 회복에 기인한 생산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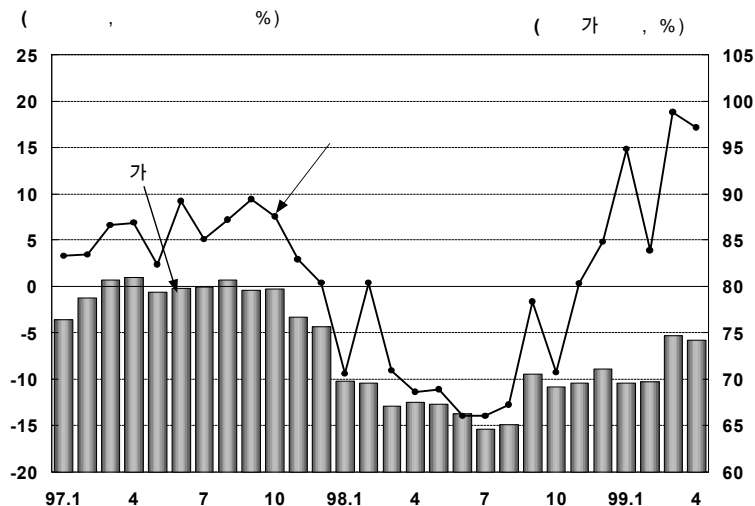
이 보 성

4월 중 산업 생산은 내수 출하의 회복세에 힘입어 1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3월에 이어 급등세를 지속함. 반면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기업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여 생산 증가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지난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가 계속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동향】

- 4월 중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3월(18.8%)에 이어 급등세가 지속됨
- 특히 98년 4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부족했던 것을 감안할 경우 4월의 실제 산업생산 증가율은 3월 수준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평균가동률은 반도체 업종 등의 가동률 저하로 3월(74.7%)에 비해 0.5%p 하락한 74.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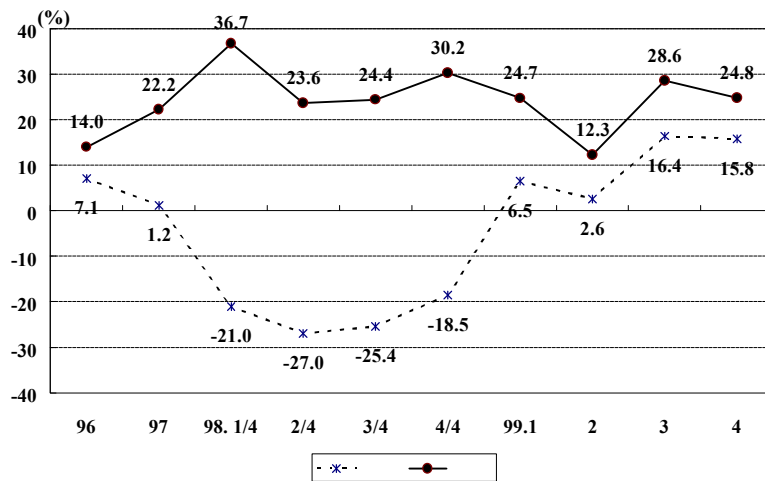
< 최근 생산 동향 >



【특징 1 : 내수 출하의 급속한 회복세에 기인】

- 생산 증가세가 과거와는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의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함
 - 97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내수 출하는 99년 1/4분기 들어 8.8%의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3월과 4월 중에는 각각 16.4%, 1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내수 출하의 증가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98년 중 지나친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반등의 영향도 존재함
 - 도소매 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기계수주도 두자리 수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생산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
 - 또한 지난해의 지나친 위축(1/4분기 중 21.0%, 4월 중 25.5% 감소)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작용

< 내수 및 수출 출하 증가율 추이 >



【특징 2 : 재고 감소를 동반한 생산 증가】

-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월 중 생산자 제품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하여 오히려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78.5를 기록 87년 12월(7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생산 증가세를 상회하는 출하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판매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아직 낙관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생산,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11	12	1	2	3	4
생산	0.3	4.8	14.8	3.9	18.8	17.1
출하	-0.4	3.2	13.6	69.7	21.4	19.5
재고	-16.8	-17.3	-16.9	-18.1	-18.6	-19.4
재고율	95.0	92.9	91.1	86.2	78.6	78.5

【전망 : 생산 증가세 지속】

- 소비 및 설비 투자 회복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호전되면서 판매만이 아닌 재고를 위한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생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99년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건설투자의 부진과 수입 증가 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루트(√)형의 경기 회복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GDP 성장률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e)	99년(p)	
			상반기	연간
GDP 성장률	5.5	-5.8	5.2	5.4

(bslee@hri.co.kr ☎ 724-4035)

고용 : 고용 불안을 동반한 실업률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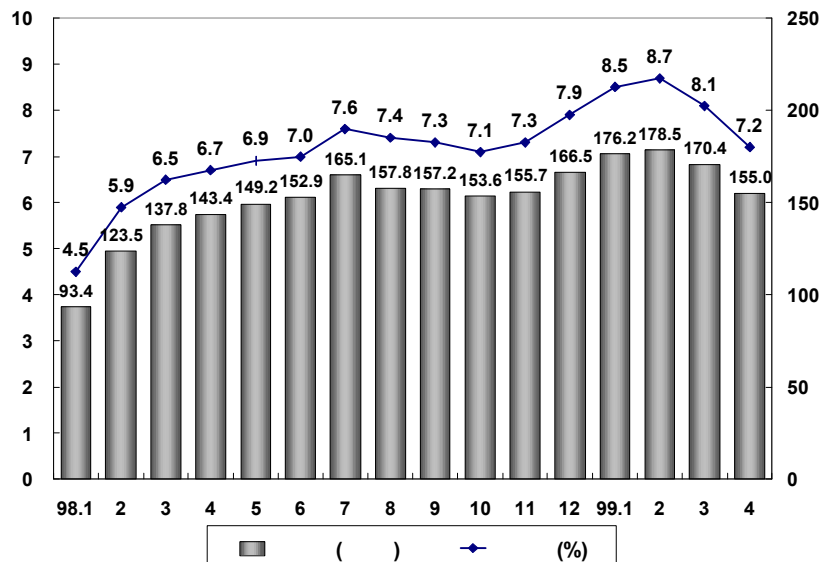
이 보 성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실업률은 4월 들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함. 그러나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불안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고용불안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향】

-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실업률은 4월 들어서도 전월(8.1%)에 비해 0.9%p나 감소한 7.2%를 기록, 하락세를 지속함
- 4월 중 실업자 수는 155.0만 명으로 전월(170.4만 명) 대비 15.4만 명이 감소함
- 한편 계절조정 실업률은 3월과 동일한 6.7%를 기록

<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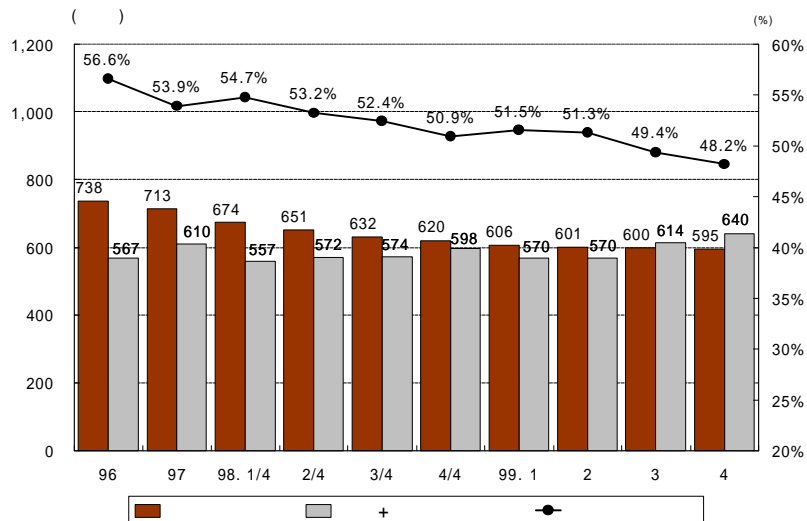
- 실업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림업,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에 주로 기인함

- 4월 중 취업자는 전월에 비해 56.6만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농림어업(41.8만명)과 건설업(8.5만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에 따라 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에 비해 40만 명이나 증가하였음

【특징 : 고용불안 지속】

-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고용불안 상황은 지속됨
-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 상용근로자 수는 오히려 3월에 비해 0.7%(4.3만 명)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0%(8.0만 명), 8.3%(17.5만 명) 증가함
- 이에 따라 지난 3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하였던 전체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이 더욱 하락함 : 3월(49.4%) → 4월(48.2%)

<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수 추이 >



- 한편,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 기대 심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음
- 그동안 구직난으로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있던 잠재실업자들이 최근의 경기 회복

- 분위기에 따라 구직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155.5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41.2만 명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60%대로 상승함 : 3월(59.5%) → 4월(60.7%)
- 6개월 후의 취업기회 전망을 나타내는 취업기회지수(통계청 발표)가 108.4를 기록,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이 향후 취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망 : 하락세 지속】

-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최근 들어 생산 증가세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해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의 채용 경색이 해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업률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구직난이 일부 해소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채용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실업률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	99년(p)	
			상반기	연간
실업률(기간 평균)	2.6	6.8	7.6	7.1

(bslee@hri.co.kr ☎ 724-4035)

소비 :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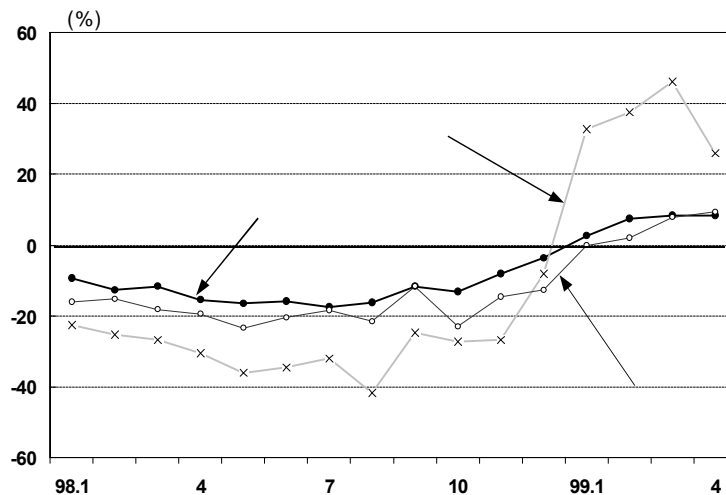
이 보 성

4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 및 대형할인점 매출의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1월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함. 또한 비내구소비재 출하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민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비 증가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실업의 지속이 이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동향】

- 4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 및 대형 할인점의 매출 신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1월(2.6%), 2월(7.4%), 3월(8.3%)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도소매 판매 증가세를 견인하던 자동차 판매는 43.6%의 증가를 보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도매업(8.4%)과 소매업(6.7%)의 판매가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지속됨

< 최근 소비 동향 >



【특징 :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

- 비내구소비재 출하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민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최근까지 소비 회복세를 이끌던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전년동월대비 26.0% 증가)을 유지하고 있음
 - 여기에 지난 2월에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던 비내구소비재의 증가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비내구소비재 증가율 2월(2.0%) → 3월(7.9%) → 4월(9.3%)
 - 또한 6개월 후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작성)가 작성을 시작한 9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 민간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소비의 빠른 회복세는 가계의 자산 소득 증가와 98년 지나친 위축에 따른 반등 등에 기인함
-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한 자산가치의 상승과 함께 최근 경기 회복 분위기에 따라 98년 중 연기되었던 소비(이연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최근 소비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망】

- 98년의 지나친 위축에 따른 반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실업의 지속이 회복세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경기 회복과 함께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아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상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소비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e)	99년(p)	
			상반기	연간
최종소비지출	3.5	-8.2	5.1	5.5
민간소비	3.1	-9.6	6.4	6.5

(bslee@hri.co.kr ☎ 724-4035)

투자 : 건설투자 부진 당분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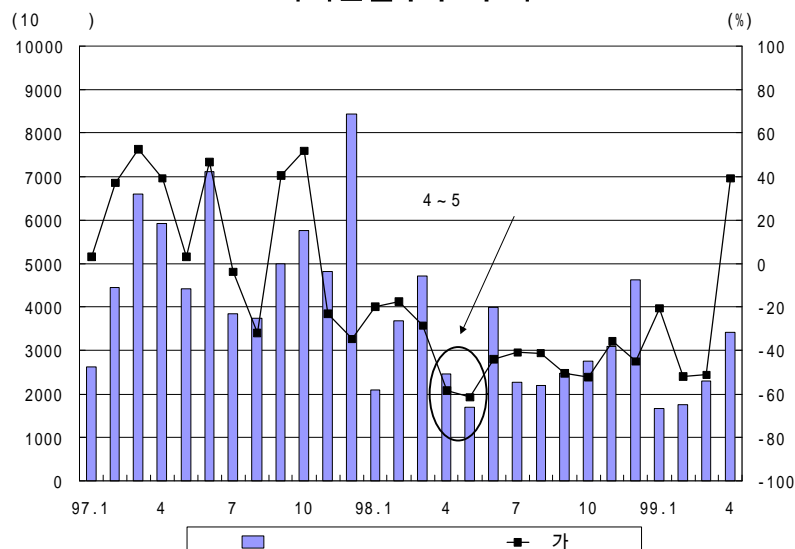
전 민 규

4월 들어 국내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수치상의 증가세 반전, 즉 외환 위기 직후인 98년 초의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상대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수주 증가가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건설투자 회복 시기는 연말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동향】

- 향후 건설투자의 향방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들이 그 동안의 감소세를 멈추고 4월 들어 일제히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4월 중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9.3% 증가하여 97년 11월 이후의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한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내수출하도 각각 23.6%와 15.7%씩 증가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설비투자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건설수주 추이>



【건설투자 회복 시기 전망】

- 국내건설수주 증가세 반전은 전년의 수주 실적이 극심한 부진을 보인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앞의 그림에서 보듯 98년 4월과 5월은 국내건설수주가 최저의 수준으로 급감하였던 시기로 올 4월의 국내건설수주 증가율은 부진이 극심하였던 98년 4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음
 - 반면 올 4월의 국내건설수주는 3조 4,200억 원으로 외환 위기 이전인 97년 4월의 수주액 5조 9,260억 원의 57.7%에 불과함
- 국내건설수주의 회복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룸
 - 전년의 심각한 부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전년 5월에는 국내건설수주가 더욱 부진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증가율만 높고 실제 수주 규모는 크지 않은 양상이 5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 건설수주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이 최악의 부진 상황에서 벗어났으나 본격적인 건설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수주된 공사는 착공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건설투자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극심한 수주 부진으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한동안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수주 증가세 반전이 건설투자의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은 하반기말에 이르러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투자 전망 >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총고정자본형성	-2.2	-21.1	-5.2	0.2	-2.4
건설투자	2.3	-10.2	-13.9	-5.3	-9.3
설비투자	-8.7	-38.5	13.0	14.0	13.5

(mkjun@hri.co.kr ☎ 724-4015)

대외거래 : 실질적 회복 없는 수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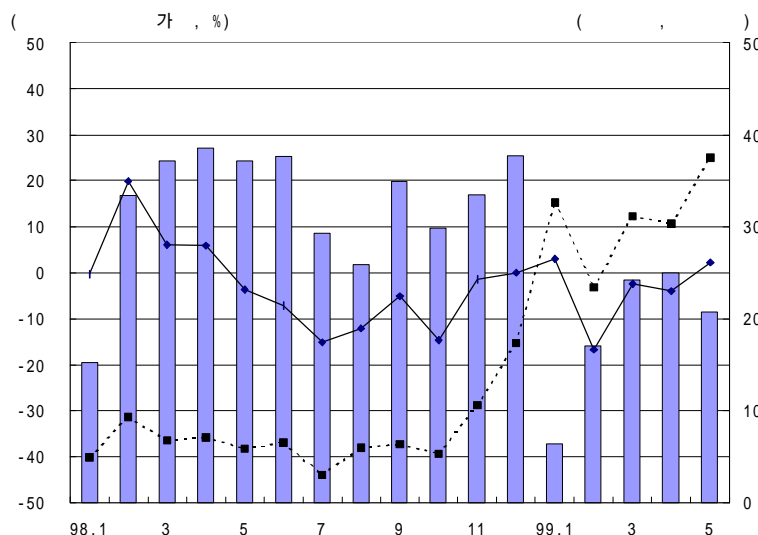
전 민 규

5월 중 수출 증가율이 2.2%를 기록하여 4개월만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수출 증가세 반전은 실질적인 수출 여건의 호전에 따른 수출 회복으로 보기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많음. 향후 수출은 미국 경기 호조와 아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악재 요인도 많아 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동향】

- 5월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최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5.0%나 증가하였음
-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월 이후 4개월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이에 비해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수출입 추이 >



【수출 증가세 반전의 평가】

- 5월 중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
 - 96년 2/4분기 이후에는 환율의 하락세 반전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 상실과 신용 경색에 따른 금융 지원 위축 등으로 수출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99년 5월의 수출 실적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실제로 5월 중 수출 실적은 115.6억 달러로 증가율이 -3.9%를 기록하였던 지난 4월의 115.9억 달러에 비해 약 3,000만 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출 실적은 외환 위기 이전인 97년 5월의 117.5억 달러에 비해서도 1.9억 달러 부족한 등 2년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최근 미국 경제의 호조 지속과 아세안 경제의 회복 등을 감안할 때 2.2%의 증가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수출입 전망】

- 호재와 악재의 혼재속에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미국 경기 호조 지속, 미약하나마 일본 및 동남아 경제의 회복세 반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전망되나 DRAM 가격의 하락, 원화 환율 하락,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악재도 만만치 않아 수출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로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월 평균 20~30%의 급증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 전망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82	400	137	92	229
무역수지(통관기준)	-85	390	123	95	218
수출(억 달러)	1,362	1323	654	676	1,330
(증가율, %)	(5.0)	(-2.8)	(-2.5)	(3.7)	(0.5)
수입(억 달러)	1,446	933	532	581	1,113
(증가율, %)	(-3.8)	(-35.5)	(12.6)	(25.1)	(19.3)

(mkjun@hri.co.kr ☎ 724-4015)

물가 : 상반기 중 저물가 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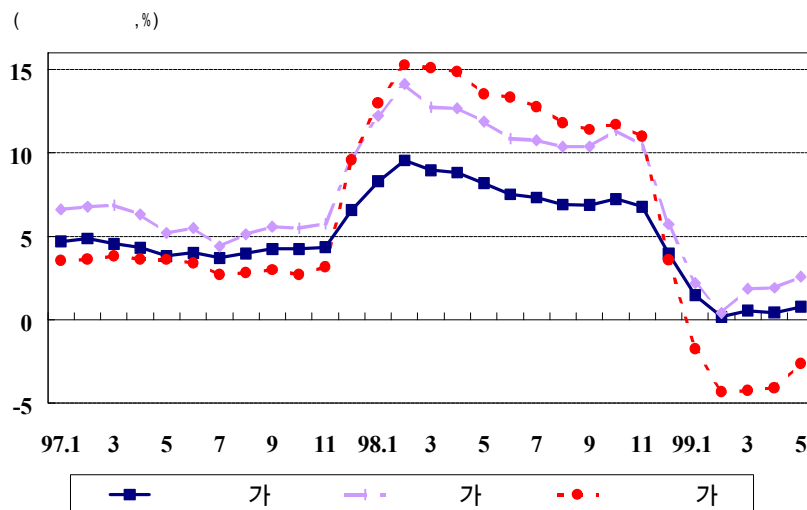
김 범 구

초과수요 압력 미미, 비용요인 안정,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힘입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5월 중 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임. 상반기 중에는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하반기 이후에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내외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동향】

- (소비자물가) 석유류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집세, 공공요금 등의 가격 인하로 전월 대비 0.2% 하락
 - (항목별) 석유류가격 인상으로 공업제품(0.4%)이 올랐으나, 채소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1.5%)이 내리고 집세(-0.5%)와 공공서비스(-0.2%)는 하락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전년동기(1~5월)대비로는 0.7%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상승

< 최근 물가 동향 >



- (생산자물가)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로는 2.6% 하락, 전년동기(1~5월) 대비로는 3.4% 하락

【평가 및 전망】 상반기 중 저물가 기조 지속

- 초과수요 압력 미미, 환율·금리 등 비용요인의 안정,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힘입어 물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시현
 - 최근의 내수 회복세는 지난해의 과도한 위축 양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이며, 더욱이 생산 증가가 병행되고 있어 초과수요 압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
 - 또한 환율 하락, 저금리 등 비용요인의 안정세 지속과 함께 정부도 세금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상반기 중에는 저물가 기조의 지속이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할 것이나, 연간으로도 2.0% 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저물가 기조의 지속에 따라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0.7~0.8%(전년동기대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빠른 소비 회복세 등 물가 불안요인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 물가가 다소 불안해지더라도 전년의 급등세에 따른 반사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5월 소비자물가 전망 >

(전년동월대비, %)

	97 년	98 년	99년							
			1/4 분기	2/4분기(p)			상반기 (p)	하반기 (p)	연간 (p)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4.5	7.5	0.7	0.4	0.8	1.5	0.9	0.8	3.4	2.1

(bkkim@hri.co.kr ☎ 724-4016)